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결과 관련
민주당 지지층
심층조사
(FGI)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결과 관련 민주당 지지층 심층조사



정치 관심층, 민주당 지지층의 시각으로 바라본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와 윤석열 정부 출범
민주당 최근 모습에 대한 인식
민주당 혁신 방향,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인식 등을 측정
이들이 향후 민주당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파악하기 위함

조사 설계

조사 방법 :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 대상 : 서울시 거주 20대 ~ 50대 성인남녀 4그룹(각 그룹 9명)
조사 시기 : 2022. 6. 18(토) ~ 19(일)

주요 조사 내용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대선 결과 관련 인식
지방선거 / 보궐선거 관련 리뷰, 인식과 평가
윤석열 정부, 민주당의 최근 모습에 대한 인식과 평가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인식
민주당의 혁신 방향과 과제

대선 결과 관련 인식과 평가

그룹별 특성

4050 남

정치 고관여층,
개혁 미미에 대한 불만
높지만, 민주당 충성도
상대적으로 높음

4050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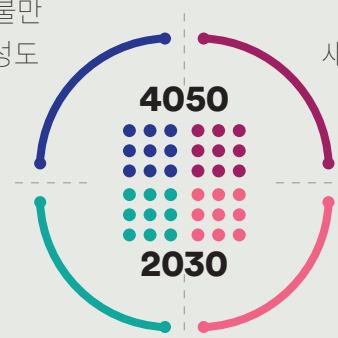
부동산·민생에 관심 높고
이낙연에 실망 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 존재

2030 남

주변 尹 지지층 많은
상황에서도 이재명 지지,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 강함

2030 여

이낙연 우호층이었으나,
젠더 이슈·개딸의 영향으로
이재명에 대한 우호 시각 형성



Q.

대선 이후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생활의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일단 뉴스를 잘 안 보게 되네요.
국내 뉴스는 아예 끊었고 ...

[2030 남성]

차이가 0.73% 라는 것이
굉장히 데미지가 크더라고요.
최근에는 더 화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4050 여성]

안타까움과 상실감 속에
원망의 대상을 찾지 못한 채
무망^{無望}의 상태로.

최근 논란 지켜보며
‘이제는 좀 따져보자’는 심리 형성 중

지지층 3명 중 2명, 대선 이길 것으로 전망, 극적인 패배
원망도 절망도 아닌... 무력감 속에 맞은 지방선거

충격 속, 허탈함과 안타까움 > 분노정서

무기력하게 지선 까지 ...

뉴스, 정치와 '거리두기' → 지선이 끝난 지금에야 상황 복기 중

尹의 정치 & 민주당 최근 행보에 실망감 증대
분노와 원망 형성

‘잘잘못 좀 따져 보자’ 라는 인식 최근 싹터

‘저런 사람, 저런 세력들한테 진 거라고?’

‘민주당은 왜 대응을 안 해?’

‘자기 살길만’

친문지지자-> 친이지지지자 전환, 그런데 친문의원?

‘정신 못 차렸다’

‘아직도 저러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원망

...





민주당을 지지한 이유

성향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
진보성향 정당

인물

문재인과 이재명이 있는 정당

관성

학습효과, 부모님 영향
국민의 힘과는 다른 정당

Q.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남시장, 도지사 때 보여준 업무 능력하고, 불법
계곡 철거, 신천지 대응 같은 걸 보면서 기존 정
치인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이 사람 뽑으면 세상이 좀 변화할 수도 있겠다라
는 생각이 들었죠.

[2030 남성]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태생이나
이런 게 약간 안 좋지 않습니까.
엘리트 코스도 밟지 않고,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이 매우 좋았고, 일단 일
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4050 남성]



이재명을 지지한 이유

유능함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 온 성과,
추진력, 개혁성, 위기에 강한 리더십 등

윤석열 대비 비교우위

행정경험, 정치력,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연민과 정서적 일체감

가난, 출신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스토리



Q.

대선 결과,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어떤 점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봤는지?

민주당이 잘못해서 불리한 싸움인데,
이재명 개인기로 갔다고 봐요.

첫 번째는 효능감을 못 느꼈다 이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어떤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

[2030 남성]

180석으로 몰아주고 나서 2년 후 대선, 부동산 문
제도 있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

180석 여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2030 여성]

선거판을 지배한 '3대 실망감',
정권심판 정서가 강해 이기기 힘든 선거

후보의 개인기로
선전·석패했다는 시각 커

실망감과 불신누적으로
구조적으로 도저히 이기기 어려운 상황속
치러진 대선



지겠네(어렵겠다)

선거 초반,
5%p 이상의 패배 당연시

그럼에도 후보의 개인기와 지지자들의 열정이
초박빙 선거, 이길 수도 있는 선거를 만들었다

후보의 유능 이미지 → 민주당, 문재인정부의 '실장' 이미지 탈색

0.7%의 패배, 성찰 필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식의 청산주의는 비동의



Q.

어떤 이유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K-방역 하다가 갑자기 확 뛰어 버리니까 놀리는
밈 같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대응 방안에 실망을
많이 한 것 같고, 다음으로 눈에 딱 보이는 부동산,
집값이 거의 두 배 뛰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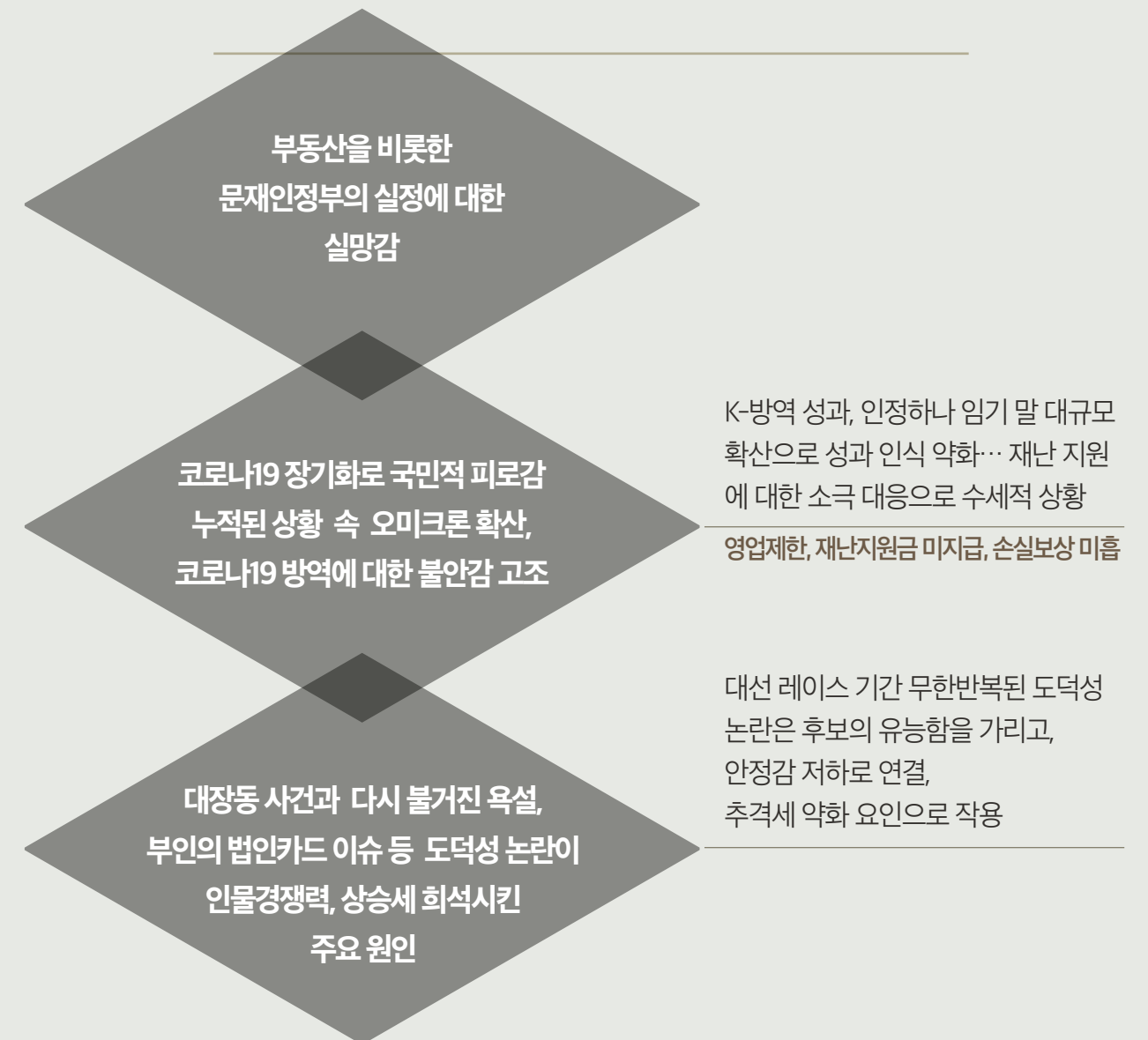
[2030 남성]

일단은 대선 기간 동안 도덕성 관련 문제들이 계
속 불거져 나왔고, 법카 문제도 있었고 ...
마이너스가 컸지요. 어르신들 사이에 서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가 많았어요.

[2030 여성]

강한 심판정서 + 코로나19 장기화,
연초 대규모 확산으로 방역 성과에 대한 인식의 약화,
자영업·청년 불만 확산

우위 보였던 후보의 인물경쟁력,
도덕성 논란으로 희석



Q.

어떤 이유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많이 심했다고 느끼기는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
고, 사실 이낙연이 적극적으로만 도왔어도 이길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30 남성]

민주당이 잘 못했고, 이재명이 오히려 잘 싸웠다
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에서도 비리라든지 이런 문
제는 같이 다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톡톡 뭉
쳐서 윤석열 후보를 되게 밀어주고 그랬는데 민
주당은 그런 게 거의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2030 여성]

민주당도 다르지 않았다
180석과 집권 프리미엄 활용 제대로 못해

극복하지 못한 경선 후유증,
ONE TEAM 아니었다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성비위와 내로남불, 도덕 불감증에 대한 실망

민주당의 성비위 사건들로 인한 도덕성 문제가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다는 실망감을 줬다는 지적

180석임에도 개혁 미미
기대감에 힘을 실어줬으나,
제대로 못해 더 큰 실망감

집권 프리미엄 활용못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당정청 엇박자로 무능 이미지

비협조적이었던 기재부, 정권 바뀌자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 대비효과 발생

경선 후유증 장기화

희생과 헌신이 없는 민주당

경선 불복 논란, 친이 의원들의 소극적 참여,
일부 이낙연 지지자들의 윤 지지선언 → 이낙연에 불만, 실망

대선 초 중반 민주당 캠페인 부족 부실, 불출마 선언 등
희생과 헌신 부재 → 민주당에 대한 기대, 신뢰 하락



Q.

어떤 이유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내는 청년정책들이 취업 내지는 주거지, 사실
30대도 다 해당은 되는데, 직업이 있으면 제외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거의 혜택을 못 봤
어요. 부동산 정책에서 거의 옥죄였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2030 남성]

끌려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쪽의 패턴에 자꾸 몰리고 우리가 주도하지 못한
다는.. 윤석열이 막말을 하면 쪽 내려갔다가 이준
석이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지, 우리가 주
도해서 끌어올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030 여성]

날카로운 창으로 준비한 상대당 대비 준비 부족

감동도 이슈도 만들지 못한 캠페인

수성하는 입장,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캠페인

그랜드 비전, 전략이라는 큰 물줄기 없이
수동적, 관성적으로 치른 선거 - **임팩트 부족**

이재명표 핵심정책 실종(기본 시리즈 후퇴)
인상 깊었던 정책은 '탈모'나 '어르신 임플란트' 정도

정책의 선점, 이슈화 실패, 윤석열 캠프의 손가락 얹기와 물타기
(사병 월급 200만원,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2030 표심 공략 실패, 젠더 이슈 대응 미흡

막판 2030 여성층 결집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대남과 젠더 이슈에 대응 못했다는 지적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 청년 정책에서 소외되는
30대를 위한 맞춤형 전략 부재 - **이대남 이슈 과몰입**



Q.
어떤 이유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김건희 둘다 사실 나쁜 건데 만약에 프레
임을 씌운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덜 나쁘게 씌
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완전 큰일날 것처럼
도덕적인 프레임을 너무 나쁘게 씌워 가지고 ...

[4050 여성]

이준석, 안철수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이공계 쪽인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갔어요.

[2030 남성]

살얼음판 네거티브전에서 패배

尹 - 安 막판 단일화 대세론에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국민의 힘, 언론 여론전과 프레임 선점으로
네거티브전에서 절대 우위

尹, 배신의 아이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 받던, 강직한 사람으로
李 - 尹 간 도덕성 공방은 철저한 물타기(국힘 의원, 적극 대처)

이재명 악마화 전략, 법카 논란 부각시켜
김건희 논란(주가 조작 + 학력 위조) 희석

이대남 캠페인

1월 초, 尹과의 갈등 봉합 후
젠더 갈라치기 등 이대남 캠페인 효과

막판 단일화, 막판 尹 대세론
막판 尹 우세 여론조사 홍수로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20대 '이공계'에 영향, 장년층·노년층에 '대세론' 확산
편향된 여론조사 홍수에, 40대와 50대·부동층에 영향이 컸다는 인식
(젊은 층은 영향 無)



종합

불리한 구도에서
정권 프리미엄 활용 못한 채
인물경쟁력으로 점점 이뤘으나,

도덕성 불균형 보도

+

여론조사 편향

+

소극 캠페인으로

석패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결과 관련
민주당 지지층
심층조사

인물

우세

이재명의 성과, 실용적인 정책 등
윤석열 비교우위

도덕성 논란으로
절대우위 → 상대우위로 전략

캠페인

소극적

정책의 선점, 이슈화 실패
소극적 캠페인
비전과 전략 부재

구도

불리

부동산 실정, 도덕 불감증,
개혁 실패 등
실망감과 불신 누적



지방선거, 보궐선거 인식과 평가



Q.

대선 이후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생활의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실망감이 커서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대선 과정에서 당이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
문에 관심이 많이 가지도 않았고 지지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4050 남성]

**집권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방선거는.
집권당을 따라가지 않으면 혜택이나 이득을 못 보
는데... 나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 이득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2030 여성]

**대선과 지선 패배를
등가로 말하지 말라**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졌다**

대선 직후 치러진 선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방선거는 대선 패배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양당 모두에서 들고나온 '대선 연장전' 프레임,
바꾸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 지배

**투표하지 않은 이유
기대감이 없어서**

4050 남성 참석자 절반,
대선 결과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
이미 '예상되는 결말' 때문에
기권

**지방선거 결과 - 참패라 할 수는 없다.
다수는 악조건에서 '나름 선전했다'는 인식**

예견된 결과로 참패 인식 없고, 경기도지사 승리로 오히려 안도감 형성
김동연 주목도, 호감도 상승



Q.

송영길 서울시장 / 이재명 계양을 출마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 선거판에 미친 영향은?

결과는 비슷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원유세에 집중했다면 이재명에 대한
논란도 적고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갔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고 보거든요.

[2030 남성]

지지자들이 가서 투표를 했다는 것에서

이재명 효과를 봤다고 봐요.

상임선대위원장의 선거 지원은 뉴스에도 많이 나
오지 않을거고, 오히려 국회의원 출마로 욕이든
칭찬이든 홍보 효과는 컸다고 봐요.

[4050 여성]

누가 대신 나와도 어려웠을 선거

적절성에 대한 논란 있지만,
대안은 있었을까?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명분 없는 vs. 희생 상반된 평가

남성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인 반면,
여성(특히 2030) 그룹에서는 송영길 출마에 비교적 우호 인식

누가 나와도 어려웠을 선거, 대안이 없었다는 중론
(이낙연 후보였다면 격차 좁혀졌을 거라는 일부 의견)

이재명 계양을 출마,
찬반 비율 비슷하나, 선거 판세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인식 강해

찬성은 이재명 효과 강조, 비판은 그룹별로 차이
(여성보다는 남성, 2030보다는 4050 비판정서 강해)

그러나 양쪽 모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원에 집중했다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지 않음



Q.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선거판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역할을 잘 해야 하
는데 오히려 화합하는 것보다는 더 싸움
을 만들면서 악효과도 더 났었거든요.
선거에 영향이 크진 않았겠지만 조금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30 남성]

대선 때는 개인적이지만 박지현이 없었
으면 0.73%도 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비대위원장 자리가 무거웠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무리수

능력과 경험 비롯해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돌출 인사

선거 막판 비대위 내분,
초점전 지역 선거결과에
영향 줬을 것

역량, 경험 비해
지나치게 중책 맡아

+

공감 받지 못한 깜짝 카드

대선 과정에서 2030 여성 지지를
촉발시켰다는 긍정 평가 일부 존재

민주당 지지층 정서와 괴리
여성도 청년도 대변 못해
오히려 이대남 '적대감 유발' 효과 마저

선거 막판 내분, 파장
초점전 지역 선거결과에 일부 악영향

그런데 만약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면
대선 마지막에 결집한 2030 여성들이 지선까
지 올 수 있었을까 ...

[2030 여성]

그 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오히려 그분 인지도를 크
게 해 준 것 같고, 대선 때 20대 남자들이 편향되어
있었는데 20대 여자를 데려다 놓고 싸움을 붙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자체가 20대 남자들한테 또
상대적인 적대감이랄까...

[4050 남성]

20대 개딸들을 대변한다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을
대변하지 못 했고... 역량 부족도 있었지만 고집도
섰고 너무 사과를 자주 하셨어요.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4050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조금 부족했었고 ...

[4050 여성]

Q.
청년정치/청년리더에 대한
평소 생각이 바뀌었나?

어떤 이슈 때문에 깜짝 발탁을 하면, 그
때문에 이슈가 되고 반대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서 당에서 성장을 하는 게 맞
을 것 같고요.

경험도 경험이지만, 그래야 당의 정체성
도 생길 것 같고 ... 어떤 당의 대표가 되
려면 정체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
든요.

[4050 남성]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것
이 이준석하고 비교하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050 남성]

박지현,
여성도 청년도 대변하지 못했고
미래 리더로도 함량미달

이준석 효과 기대했으나 실패,
민주당 내에서
검증하고 성장시켜야

대표급 인재라면,
당내에서 성장하고
검증된 인사여야

나으로 청년을 대변할 순 없어,
청년정신과 시대정신 갖춰야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식 성장 모델 연구해야

민주당에게 실력과 대중성 갖춘
청년 정치인 양성이라는 숙제 남겨

청년이 중요하고 청년들을 정치 쪽으로
데려 오고 이런 분위기는 이해가 되는
데, 솔직히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
렇지만 젊은 분들이 폭 넓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한계는 인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도 좀 했습니다.

[4050 여성]

실제로 이준석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
러진 않았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꾸준
히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
그런 것을 저희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4050 여성]



Q.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정상화 방향성은 맞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권 마지막 재가
를 받는다고 너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었어요. 2020년 7월에 할 일을 2022년
에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던 것 ...

[2030 남성]

추경, 영향 있었죠. 능력 문제잖아요.
민주당이 180석 일 때는 (돈이) 있어도
안 해줬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해주는구
나, 대통령 바뀌니까 해준다 ...

[4050 남성]

검찰 정상화 법안 당위성 공감,
Timing 이슈,
진작에 했어야

선거 직전 추경은
선거에 다소 영향 줬을 것

검찰 정상화 추진,
필요성과 방향성에 동의
진작에 추진 했어야 했는데...

중도층에 영향 있었다는 의견 일부
+ '왜 진작에 못했나'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 요인은 아님

선거 전 추경, 문재인 정부와 비교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했어야 ...

4050을 중심으로
자영업층에는 영향을 끼쳤다고 인식
추경은 정권이 바뀌니까 가능 해졌다는 인식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불만

검찰 공화국을 조금이라도 탈피하기 위
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노력을 해 왔
는데 그걸 중도층의 이탈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탈될 중도층이었으
면 애초에 그쪽이었어요.

[2030 여성]

추경, 그거 했으면 대선도 뒤집을 수 있
었어요. 그게 180석을 갖고도 일을 제대
로 못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4050 여성]



윤석열정부 - 민주당 최근 모습에 대한 인식과 평가



Q.

윤석열 정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가장 못마땅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사 문제가 가장 크고요. 너무 대놓고
검찰에서만 뽑고 있거든요. 그것도 자기
친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대다수 ...

그리고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이 앞에 나서고,
김건희 여사가 뭐 했다 그런 똑같은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2030 남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한 게 먼저 떠
올라요. 검찰공화국 진짜 하는 구나...
주변에서는 김건희 얘기를 많이 하더라
고요.

국민 숨 넘어가는 경제위기 목전

모든 면에서
전혀 '준비 안 된' 대통령'에 당황

민심을 무시하는 독선적 &
민생에 관심 없는 한가한 대통령

급변하는 대외환경,
경제, 안보 전방위 불안 ...
보이지 않는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심리 팽배

경제 상황

물가, 기준금리와 환율 급등
부동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주식, 가상화폐 폭락으로
개미들 패닉

외교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격화되는 미중 패권경쟁
경색국면인 남북관계

문재인정부 부정 (용산이전) +
검찰공화국(한동훈장관) +
대통령놀이(김건희씨) 외에
비전 전무한 윤석열정부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했는데 전면으
로 드러내고 그런 게 참 좋게 안 보여요.
대통령이 보이지 않아요.

[4050 남성]

뉴스 보면 김건희 여사 내용이 주고,
대통령 놀이하는 느낌이 너무 커요.
민생을 챙기고 일한다는 얘기는 없고
뭐 먹으러 다니네 누구랑 놀러 갔네 이
런 소리 밖에 없으니까 ...
언론은 김건희 여사 패션이랑 뭐 하는
지 보도하는 것에 급급한 것 같아요.

[4050 여성]

장관들을 다 검찰에서 사람 갖다 댔는
데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난리
가 났는데 과연 그 검사만 하던 사람들
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밀려 들
어오는 건데, 이 정부 안에서는 각자도
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들죠.

[4050 여성]



Q.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최근 모습 중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뭔가 대선 끝나고 반성의 모습으로 일심동력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얘기해도 모자를 판에 너
무 계파 갈등이 심하고 이래서 2년 뒤에 총선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는 우려스러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하는 생각이 들
긴 합니다.

[2030 남성]

요즘 민주당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너무 안일한 대처,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
이 됐지만 지금 다시 바꿔볼 수 있는 기초적인 것
을 잘 쌓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지, 어버
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4050 여성]

국민들은 불안한데...
민주당은 뭘 하고 있죠?

민주당의 최근 모습에 실망, 이탈



이재명 탓?

엄치 없다! 의도가 보이네?

‘남 탓’이 아닌, ‘내 탓’ 먼저 했어야

책임론 = 책임 전가
함께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자기 정치면피, 활로모색, 정적 제거 위해 꺼낸 프레임

전당대회 앞두고, 특정 세력이
이재명 불출마 여론 형성을 위한 포석이라는 인식

심적으로 동의하기도 어렵고, 부작용도 클 것

이재명 당대표 출마여부와 무관하게,
책임론 제기 자체에 화 나

오히려 이재명 중심 결집정서의 확산 계기로 역작용

친문’ 딱지, 자기정치 도구로만 활용◆

내 탓이요가 먼저였어야 ◆◆

◆ 엄치없다, 비겁하다 ◆◆ 2008년 친노 폐족 먼저 언급한 안희정 케이스

Q.

이낙연 / 전해철 / 홍영표의원 등이
제기한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재명 때문이다,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싸울 게 아니고
서로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
더 안 좋게 보여졌어요.

[2030 남성]

8월에 자기가 당대표 하고 싶어서
그렇지 몰라도 ... 너무 서로 깎아내리면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냥 구실을 찾는 것 같아요.

[4050 남성]

진짜 답답하다, 어쨌든 같은 당인데 같
이 가야지, 자기들만 이렇게 빠지는 것
은 너무 비겁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었
어요. 책임전가 하는 ...

[2030 여성]

꼭 지기만을 기다린 사람들 같았어요.
‘기회는 이때다, 내가 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 다른
당 사람들이 와서 (당을) X맨 처럼 해
치는 느낌.

[4050 여성]



Q.

팬덤정치나 수박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이 팬덤에 매몰돼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면, 팬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할 수 있어야
정치가관이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데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30 여성]

어떤 정치 세력이든 열렬히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
야 한다고 생각...
거기서 파급효과를 내서 중도라든지 다른 분들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팬덤 정
치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4050 여성]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팬덤만 선별적으로 비판하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

내부 분열, 내부 저격에 대한 위기감 존재, 당내 다양성 존중

정치팬덤, 참여 민주주의 필연적 산물 팬덤 정치와 대중 정치를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평면적 시각

자연스러운 현상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

노사모, 박사모, 문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기하는 팬덤논란에 대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자신에게 불리할 때만 비판하는

손 벌릴 땐 언제고

적절치 않다

당원과 지지자를 적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비겁한 행동

팬덤 정치에 비판적인 인사를 당원·지지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대변해 온 인물로 보지 않음

정치팬덤의 순기능 > 역기능

배타성, 공격성 등 부작용 최소화

균형 있는 의견 수렴과 과정 관리 중요

참석자 다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수박논란'

오죽 답답했으면...

내부 저격은 자제해야

다양성 존중, 균형 사고 중요



민주당 혁신방향과 과제 차기 전당대회 관련 기대지점



Q.
현재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친문, 586, 친명 세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목소리가 큰(주도적인, 나서는),
개혁성향이 강한 세력이
주류라고 생각한 일부 참석자들
친명을 주류로 꼽음

친문? 586인가?
문재인 대통령 은퇴 이후 당의 상징,
리더십 부재로 주류세력 실종

친문, '586'이 현재 주류라고 인식
그러나
실체로서 실제적 주류세력의 부재

친명: 이름을 특정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

'친명' 꿈은 응답자는 소수.
친명은 아예
세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인식

친문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임명, 이해로 얹힌 다양한 인사 연상,
문재인과 가치공유한 인사들 지칭과 혼용하여 인식의 혼란

이낙연 가장 많이 언급,
그 외 홍영표, 추미애, 전해철, 김경수, 조국 등

586

민주당 뿌리, 대선그룹, 영향력 있는 세력,
노무현 대통령 때 발탁된 Old Boy 연상

우상호, 임종석, 송영길, 이인영 등 언급
586 전체를 청산 대상이나, 부정적 세력으로 보지 않음

친명

단일대오 인식보다는 대선과정에서 이재명과 함께한,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실체가 모호한

2030 여성층에서는 송영길,
4050 남성층에서는 김남국, 최강욱,
4050 여성층에서는 처럼희 언급

Q.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요?

단일지도체제 vs. 집단지도체제 중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어떤 인물들이 지도부^{당대표/최고위원}에 들어가길 바라십니까?

기존에 친문 정권에 있었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했던 것들을 국민들이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뀐 거고, 물갈이가 한번 돼야 할 텐데 그
럼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밖에 없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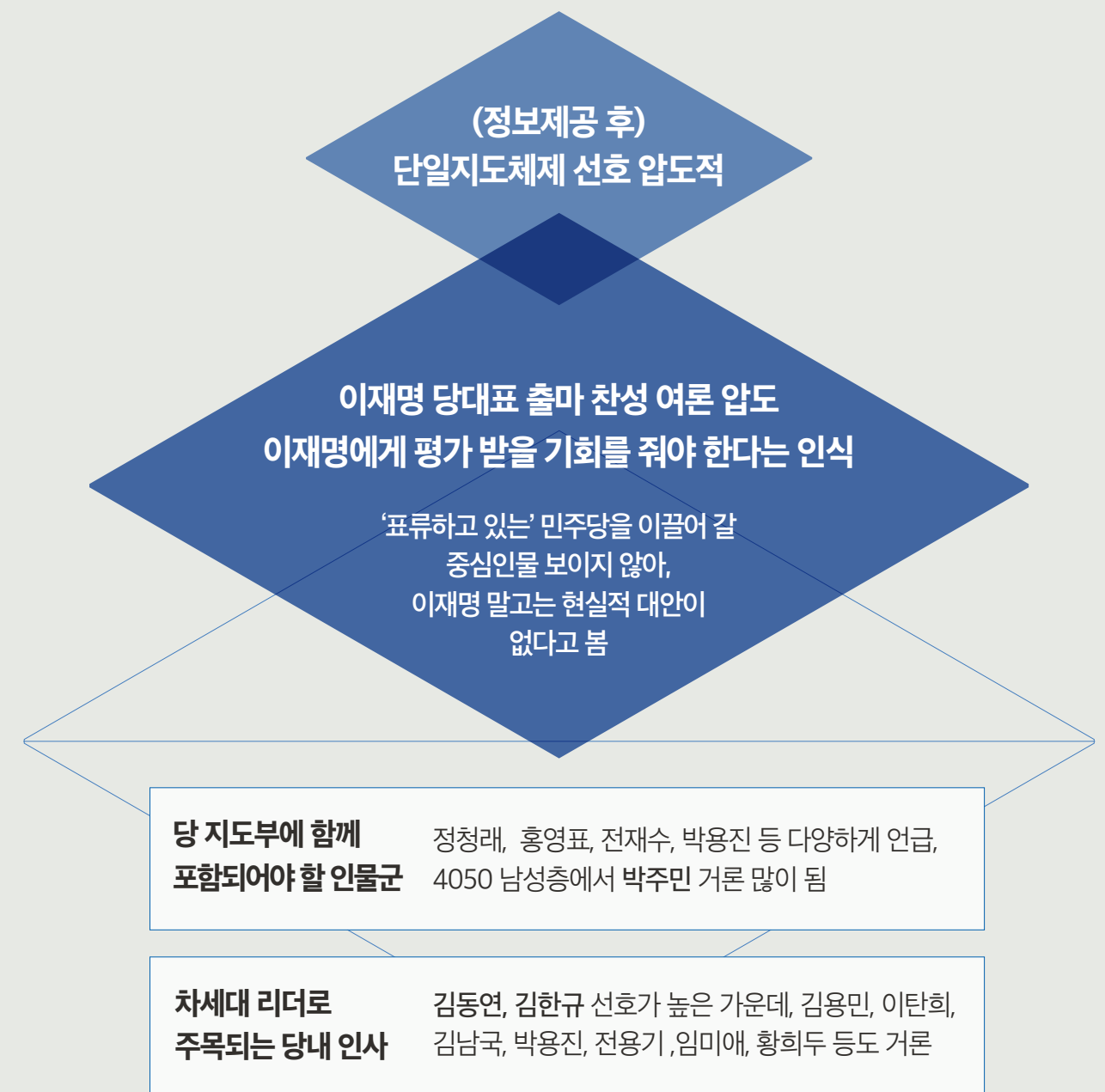
[2030 남성]

강력한 리더가 당을 끌고 가야 그래도 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상대할 사람들이 상대당의 대표와 대통령,
그 외에도 많기 때문에 당대표가 권한을 더 세게
갖는 게 필요 ...

[4050 남성]

당내 분열의 불씨를 끄고
정부여당에 맞서며,
민주당을 이끌고 혁신할
‘강한 리더십’이 필요



Q.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를 되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인,
수권정당으로서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는,
분열 보다는 단합으로
미래정당으로 자리매김

단합과 통합

패배 원인에 대한
진단, 반성 토대로
통 큰 단결

당원 우선 정당

당원 참여 확대,
당원 소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청년 우선 정당

당에서 성장한, 정체성 공유한,
유능한 청년 육성
(홍보 등 전문인력 수혈)

집권 플랜 준비

정책역량 강화와
싱크탱크 가동,
안정감과 리더십 제시

미래 준비 정당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인,
개방적이고 열린
플랫폼 구축

유능한 정당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 우선 추진

신뢰성 회복 젠더 갈등

기대치에 부합하는 도덕성,
젠더 갈라치기 넘어서는
아젠다 제시

업그레이드 된 야성

세련되고 공감 받는,
강한 공격수의 전진 배치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결과 관련
민주당 지지층
심층조사
(FGI)

여론조사 